

황새의 선물

2030년 4월 23일



2030년 4월 20일~25일까지 버스 출현 예정 장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로 64번길 “EasyDone 낙태 전문 클리닉” 입구

무료로 초음파 검사를 해드립니다! 무료 초음파 검진을 원하시는 임산부들은 이 버스에 탑승해 주세요! 아이를 살릴 맘만 있다면 출산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아이와의 행복한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길을 찾으세요~ 서울 곳곳에 나타나는 ‘황새의 선물’ 버스를 찾아주세요!

때는 2030년.. 대한민국 형법에서 낙태죄를 폐지하고 임신 22주까지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는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법이 10여년 전에 만들어지고 난 후, 전국적으로 낙태를 광고하는 낙태 전문 클리닉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하고 수 많은 말없는 희생자들이 늘어갔다.

매년 낙태가 50만건 정도 일어나 법이 바뀌더라도 약 500만 명의 태아가 세상에서 빛도 못 바랜 채 죽임을 당했다. 이 사실을 심각하게 여긴 몇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비를 들여 낙태를 원했던 임산부들의 마음을 달래어 주고 위로해 주는 ‘초음파 버스’를 제작했다. 이 버스에서는 임산부들에게 무료로 초음파 검사를 해주고 출산, 입양, 위탁가족 등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와 자료들을 제공해준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선 지 이제 몇 개월 안 되었지만, 많은 산모들이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고는 낙태를 강행하지 못 한다는 것이 사실임이 드러났다.

**이 이야기는 실제 미국에서 존재하는 생명을 살리는 버스 'Save the Storks'의 이야기를 한국 상황에 맞게 표현한 것입니다. 미국 뉴욕 브롱스에서 시작된 이 버스는 현재까지 수백 명의 산모를 만나 수백 명의 태아를 살려냈습니다. 이 버스에 탑승한 산모들 중 80%가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듣고는 낙태가 아닌 출산을 택했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위로를 얻어 갔습니다. 적절한 지원과 도움의 손길로 낙태를 선택하는 대부분의 산모들의 공통된 고민과 걱정을 덜어줌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9년 4월 11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

니다.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낙태 금지 국가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공익인 태아의 생명권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보다 더 우선한다는 2012년 헌재 판결문의 내용처럼 생명의 소중함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 생명의 소중함이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 버렸고, 이는 1973년 미국이 낙태를 합법화 하였을 때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때로부터 46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선 어언 50년 동안 5천만여 명의 아기들이 살해되었고, 현재도 낙태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 버스도 그 중 한 부분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재의 결정 이후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가상 이야기 속 버스가 한국에서도 곧 생겨나지 않을까요?

